

■ 화제의 뉴스 ■

대법원, 새만금 관할 분쟁에 사상 첫 현장 검증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 1·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을 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등, 국민과 소통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검증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009년 12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제시는 ①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진 점, ②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③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대법원 사상 첫 현장검증, 새만금 땅주인 가릴까 - 조선일보 | 2013. 4. 11.
- 대법원, 새만금 관할권 분쟁 사상 첫 현장검증 - 연합뉴스 | 2013. 4. 10.